



茶 직접 만들고 봄을 맛보고

국립전주박물관 31일 '나만의 차 만들기'
홍차·녹차 등 시음, 조리 체험 등 이어가

국립전주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의 외연확대 일환으로 '봄맞이, 나만의 차 만들기'를 오는 31일 오후 2시와 4시 박물관 열린공간 운에서 진행한다.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될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차와 재료를 직접 맛보면서 차에 대한 이해와 자신만의 차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리 준비된 홍차와 녹차를 시음하면서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주재료인 홍차와 녹차, 부재료인 티센을 활용하여 개인의 기호에 맞는 '자신만의 차 만들기' 체험을 이어갈 예정이다. 티센(Tisane)이란 허브나 약용식물로 만든 차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장미꽃잎과 과일 조각·민트·허브 등을 부재료로 사용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시간별로 25명씩 총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29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자신만의 차를 만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색다른 문화 체험"이라며 "일상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봄 향기가 가득한 문화 힐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통 수공예에 관심 있으세요?'

전통문화전당, 내달 12일부터 전수자 양성 교육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공예 기술을 강의하는 '전통 수공예 전수자 양성교육'을 연다.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수공예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전통기법의 수공예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강의는 오는 4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공예명인관에서 1주일에 3시간씩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 프로그램의 강사로는 가야

금·무형문화재 악기장 교수환, 전통 목조각·무형문화재 민속조각장 김종연, 부채(단선)·무형문화재 방화선, 지승제조·무형문화재 김선애 선생님이 나선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교육생은 5명에 한한다. 교육은 전통 수공예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경력자는 우대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재료비는 교육생 부담). 교육신청은 오는 4월 6일까지 전당 홈페이지(httc.or.kr)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꽃눈 내리는 날, 꽃길로'

30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전북도립국악원은 관현악단의 선율로 봄날의 정취를 전한다.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리는 신춘음악회 '꽃눈 내리는 날, 꽃길로 걸어요'는 봄을 만끽 할 수 있는 곡들로 꾸며진다. 공연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움을 연주하는 '꽃눈 내리는 날'을 시작으로, '거문고산조 협주곡' 남도민요 '사철가, 봄노래' '대금산조 협주곡'과 삶의 소망을 담은 '꽃길' 까지 총 5곡의 연주곡을 선보인다. 국악관현악단 45명이 펼치는 꽃눈 내리는 날은 화사하게 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꽃눈으로 내리는 풍경을 그린다. 작곡자 김수현에게 위촉해 처음 연주를 갖는 곡이다. 이어지는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협주곡은 남도무악인 시나위 가락을 바탕으로, 중후하고 장중한 거문고의 음색을 들을 수 있다.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문화중 교수의 거문고 협연으로 그 맛을 더할 예정이다. 남도민요 사철가, 봄노래는 사람의 생애를 봄·여름·가을·겨울로 빗대어 표현한 사철



가와 봄노래를 편곡했다. 창극단 '여성명창'과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또 독특한 농현과 즉흥성이 특장인 서용

석류 대금산조 협주곡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의 대미는 국악관현악 꽃길에 장식한다. 봄바람에 실어오는 향긋한 꽃내음을 표현한 곡으로 이번에도 초연된다. 이태근 국악원장은 "꽃향기 가득한 창작음악과 뛰어난 예술성을 가진 연주자들의 협연 무대는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게 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현장을 방문하면 1시간 30분전부터(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시인 창작 위촉곡'

전주시립합창단의 제131회 정기연주회 '전주시인 창작 위촉곡'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합창곡의 레파토리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자 마련됐다. 연주곡에 쓰일 작품은 전경숙 작곡가에게 위촉,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인들의 시 중에서 좋은 시를 엄선해 선정했다. 작가 박해숙의 '모란꽃'을 비롯한 송희의 '비오는 날 산길', 진동규의 '바편을 먹으면



전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9일 소리문화전당서 무대

서' 등의 시에 곡을 덧붙였다. 공연은 리트비아 출신의 작곡가 에릭스 에켄발츠의 밤과 별을 주제로 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를 위해 메조소프라노 송윤진, 테너 윤병길, 반도네온 레오 정, 일렉톤 사쿠라이 유키호, Rhythmic percussion Ensemble이 특별출연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본한민국)

순위	후원금 사용내역	금액
01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원비용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